

상태가 주요 암의 건강불평등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과 성별 불평등, 그리고 결혼상태 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3년간의 시계열로 보았을 때도 뚜렷히 나타났다. 향후 주요 암 관리정책에 있어 사회경제적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SPM-104

**성인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미충족의료 연구
Unmet Need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BPH) in
Community-based Survey of Elderly Men**

김한해¹⁾, 박혜숙²⁾, 이훈재³⁾, 권성원⁴⁾, 허영주⁵⁾, 정유진⁶⁾, 문옥륜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4)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5) 질병관리본부 질병감사과, (6) 양천구 보건소

목적: 연령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립선비대증은 인구가 노령화하면서 그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남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립선비대증은 조기발견·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 남성들은 전립선비대증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노령화에 따른 경제 능력도 저하되어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전립선비대증의 유병률과 의료이용률을 파악하여, 전립선비대증의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층화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선정된 서울시 양천구 지역의 50세~80세 성인 남성인구 1,021명을 대상으로 검진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검진을 통하여 밝혀진 하부요로증상과 전립선비대증의 유병률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의료필요를 규명하고, 실제 의료이용실태와 미충족의료의 이유를 조사하였다. 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전체 641명이 전립선비대증 역학조사에 참여하였으며(참여율 62.8%), 이 중 경증 이상의 하부요로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이용여부에 관한 조사에 충실히 응한 경우는 501명(78.2%)이었다. 경증 이상의 하부요로증상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경우는 105명(21.0%),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396명(79.0%)이었고,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5.9%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요로증상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석 결과, 연령이 높고,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며, 전용주거면적이 좁고, 용돈이 적고, 경제상태를 '보통이하'라고 생각할수록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각증상의 시작 시기가 비교적 짧고, 중증도가 경하며, 자가인식 건강상태나 배뇨관련 삶의 질이 좋을수록 의료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요로증상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상태, 자각증상 시작시기, 그리고 배뇨관련 삶의 질이 유의한 변수로 남았다.

한편, 검진 결과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되었으면서 의료이용여부에 관한 조사에 충실히 응답한 116명 가운데에서는 병의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36명(31.0%)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80명(69.0%)이었다. 전립선비대증이 있으면서도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서도 하부요로증상만 가진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60.3%를 차지하였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전용주거면적이 좁고(교차비 4.19, 95%신뢰구간 1.68-10.46),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수록(교차비 2.71, 95%신뢰구간 1.10-6.69)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하부요로증상과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세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의료이용에는 경제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을 조기발견·조기치료 할 수 있도록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고,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KSPM-130

**뇌사자 장기기증 관련요인 분석
Factors affecting organ donation for brain dead people**

문옥륜¹⁾, 이철형¹⁾, 김귀현¹⁾, 황보혜민¹⁾, 김진희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적: 뇌사자의 장기기증 건수의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증가시켜서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첫째, 뇌사자의 유족지원방안과 그에 대한 지원기금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둘째, 생체이식 및 사후 장기의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이며, 셋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고찰방법으로 우리나라 장기기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하고, 외국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위하여 기존 국내외 문헌과 법령안등을 검색해서 심층 분석하는 방법이다. 둘째, 설문 조사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 81명과 수혜자 54명, 그리고 장기이식대기자 79명으로 총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으로써 일반인 253명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후 분석하였다. 설문자료를 SPSS 10.0 statistics package를 이용하여 기초 통계 뿐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장기기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면접방식으로 KONOS 직원들과 이식관련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부분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회견형식으로 수집하였다.

결과: 첫째, 뇌사판정기준의 인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변수는 대상자(p-value = 0.001)와 사회단체참여여부(p-val-